

자료제공 : 2023. 11. 21.(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 부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자립지원과장	경자인	02-2133-7470
장애인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02-2133-7440
장애인 일자리팀장	강윤경	02-2133-7453
장애인 복지정책팀장	임하정	02-2133-7442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13쪽

## 선량한 시민들의 발목 잡는 집회·시위 일자리 폐지 ...서울시, 전장연 시위 중단 촉구

- 자신의 이동권 주장 전에 선량한 시민들의 이동권부터 존중해야
- 서울시의 합리적인 장애인 정책 왜곡 선전 중단해야
- ‘권리중심중증장애인 일자리’ 집회·시위 위주 편중...‘일자리’와 성격 달라
- 장애인 전체의 복지를 향상하는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23년 대비 350개 증가)

### <전장연 불법시위 관련>

-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올 한해 76여 회에 걸쳐 집회와 시위를 강행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고 밝혔다.(붙임1 참조)
  - 전장연은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근 시간 삶의 터전으로 향하는 서울시민의 실핏줄과 같은 지하철 승강장이나 버스 전용차선을 자신들의 집회·시위 장소로 이용하였다.
  - 특히, 10량 가량의 지하철 객차에 설치된 40여 개의 출입구 주변을 휠체어 등으로 일제히 막아서거나 열차 탑승구에서 이동하지 않고 타고 내리기만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고단한 시민들의 출근길 발걸음을 더욱 힘겹게 하였다.

- 2년여간('21~'23년초)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4,450억원으로 추산되며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장연 시위 집회 관련 현장 사진>**



**<전장연 시위 관련 주요 민원 내용>**

연번	민원내용
1	지각으로 인해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해고당하고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없어 매일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단체 시위 때문에 지연된다고 방송 나오는데 얼마나 지연되나요?
3	시위로 지연되는데 지연증명서 업데이트는 언제 되나요?
4	시위로 지연이 지속되고 있는데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5	출근시간 바쁘는데 언제까지 시위를 방치하나요?
6	불법시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연으로 피해받고 있는데 조치해주세요.
7	불법시위인데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8	시위로 인한 지연인데 지연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지각입니다.
9	출근 시간인데 지연인데 빨리 조치해주세요. 고의적인데 운행방해 하는 거 아닌가요.
10	시위라고 매 정거장마다 정차를 하나요? 출근시간 바쁩니다.
11	시위 다시 하필 가장 붐비는 시간 골라서 한다는 기사입니다. 고통은 서울에서 지하철로 출근하는 사람들과 지하철에서 그 스티커와 쓰레기를 감당해야 하는 청소부들의 몫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정상적인 출근길 보장 부탁드립니다.
12	전쟁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에 시위를 하나요? 비장애인들은 세금에 허덕이고, 급여는 쥐꼬리만하고, 그래도 목구멍에 풀칠좀 해보겠다고 출퇴근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적으로 몸으로 전체가 힘들고 아픈 시간에 시위를 하고...(생략)...

- 시는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 공연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 법원 역시 전장연 관계자의 업무 방해 등의 혐의에 관해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2021고단5783)한 바 있다.

### 〈전장연 권리중심일자리 사업 중단 관련〉

- 전장연은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최종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그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되고, 특정 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이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20.7월 추진한 사업으로, 수행기관이 전장연 소속기관 등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이 공공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 이에 올해 3월 실태조사 실시 결과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별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전장연에서 주최하는 집회·시위에는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의 활동 등에 이용되며  
일자리 실효성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6.8권리중심일자리살리기캠페인, 6.29 전동행진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 집회·시위 관련 사진>**



- 특히, 장애인의 권익과 인식개선을 위해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더는 유지할 수 없어 '23.7.1일부터 직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개선하였음에도 대다수 일자리 활동은 장애인복지관 문화·체육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복지형)와 차별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 서울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목적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소관 부서 본연의 역할로서, 앞으로 특정 단체 소속 중심이 아닌 다양한 기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활동을 통해 자아실현 등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4년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23년보다 확대 추진>**

□ 서울시는 '24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증액된 493억을 편성하고 공공일자리 수를 전년 대비 350개를 늘린 4,674개를 제공한다.

※ '23년 : 4,324개, 47,399백만원 → ('24년안) 4,674개, 49,386백만원

□ 특히, '24년부터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 을 통해 원예 관리 보조, 장애 예술인 등 시대변화와 장애 유형, 특성을 반영한 직무와 근무처를 발굴·제안받아 장애인 개인의 자아실현과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전장연 소속기관 중심 및 집회·시위·캠페인 등 가치 편향적으로 운영되던 문제점을 보완해 '24년부터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 총 250개, 4,069백만원을 편성하였다.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장애인 권익옹호, 인식개선 등에 편중되었으나,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은 원예관리 보조, 장애 예술인 등 시대변화와 장애 특성을 반영한 직무와 근무처를 발굴·제안받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붙임3 참조)

※ 예) 시각이 발달한 청각장애인은 감각적 예민함을 활용하여 시데이터라벨러사업에 참여, 중증 근육장애, 뇌병변 장애인도 불법·저작권 침해 콘텐츠 검색 및 관련 기관 신고,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등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향후 '24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일자리 사업 설명회 등을 거쳐 공모·선정하며, '24. 1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해 '24. 2월부터 11개월간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24년에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 일자리 외에도 복지형 일자리·발달 요양보호사 보조 등 중증장애인이 다수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국비 매칭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증가한다.

○ 전년 대비 증가한 규모는 총 540개로, 사무보조, 보육도우미, 실버케어 등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월 56시간 근무하는 복지일자리 450개, 특화사업인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60개,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30개를 지원한다.

- 서울시는 공공일자리 외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4년 516억원 예산을 편성하며 140개소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약 4,10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제작 및 판매 등 직업훈련과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민간 취업 연계를 위해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특화 커리어플러스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민들의 평온한 출퇴근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 ○ 집회 내역 : 총 76회

※ 평일 매일 진행하는 국회의원당역(혜화역) 선전전, 버스 선전전(8월~), 문화행사 등 제외

연번	일시	장소	참석	내용
1	11.20 08:00	시청역 2호선	박○○, 이○○ 등 장애인 활동가 70여명	○ 거주시설 연계사업, 권리중심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
2	11.15 14:00	서울시장 공관 앞	이○○ 등 장애인 활동가 70여명	○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전담인력 55명 해고 규탄 기자회견
3	11.11 13:00	서대문역 5번 출구 (농협은행, 쌀박물관)	박○○ 등 장애인 및 활동가 200여명	○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참가
4	11.10 08:00	시청역 2호선	이○○, 유○○ 등 장애인 활동가 30여명	○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5	11.9 10:00	인천공항 등	박○○, 유○○ 등 장애인활동가 20여명	○ 비행기 탑승권리 선전전
6	11.1 10:00	공항공사	박○○, 유○○ 등 장애인활동가 20여명	○ 장애인 비행기 이동권 보장
7	10.26 13:00	시청역 1호선	박○○, 이○○ 등 장애인 활동가 40여명	○ 이동권 보장 촉구 및 교통공사 파업지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폐지 음모 저지 규탄대회
8	9.27 9:30	서울역, 서울동서울터미널	박○○ 등 장애인 활동가 30여명	○ 이동권 보장 촉구 선전전
9	9.25 8:00	시청역 2호선	박○○ 등 장애인 활동가 20여명	○ 이동권 권리예산 확보 등 종교계 호소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개최 시점('23.11.13.)까지 출근길 시위중단 선언
10	9.20 13:00	여의도 이룸센터 앞, 시청역 1호선(18:00)	전장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모연대 등 10개 단체 장애인 및 활동가 200여명 ※시청역 : 100여명 (휠체어 약30대)	○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및 권리입법 요구, 거리행진 등
11	9.18 8:00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본부, 시청역 2호선 등	박○○ 등 장애인 활동가 80여 명	○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고용노동부 사업* 폐지 철회 등), 고용공단 점거시위자 연행 규탄,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등
12	9.11 8:00	시청역 2호선	권○○, 박○○, 이○○ 등 50여명	○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및 정부 대화 촉구



연 번	일시	장소	참석	내 용
13	9.5 8:00	시청역 1호선	권○○, 박○○, 이○○ 등 50여명	○ 장애인 혐오정치 규탄,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
14	8.30 10:00	국가인권위원회 앞	이○○, 이○○, 추○○ 등 30여명	○ ‘전문학적 예산’ 운운,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 오세훈시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35차 버스행동’ 선전전
15	8.23 18:00	마로니에공원, 시청역 1호선	박○○, 이○○, 이○○ 등 장애인 및 활동가 60여명	○ 오세훈 서울시장 대화 파기 규탄 및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 30차 버스행동
16	8.11 13:00	혜화경찰서 앞	최○○, 박○○ 등 장애인 및 활동가 30여명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피고발자 합동 출석 기자회견
17	7.31 18:00	혜화역.마로니에공 원 버스정류장	박○○, 이○○ 등 20여명	○ ‘버스행동’ 선전전
18	7.28 19:00	혜화역.마로니에공 원 버스정류장	박○○, 이○○, 유○○ 등 장애인 및 활동가 20여명	○ ‘버스행동’ 선전전
19	7.27 19:00	혜화역.마로니에공 원 버스정류장	박○○, 이○○, 이○○ 등 장애인 및 활동가 20여명	○ ‘버스행동’ 선전전
20	7.26 13:00	국회 앞	최○○, 문○○, 유○○ 등 30여명	○ 장애인복지법개악(이○○ 일부개정안)반대 기자회견
21	7.25 17:00	광화문역	박○○, 이○○, 이○○ 등 30여명	○ 기획재정부 이동권 예산 촉구 퇴근길 선전전
22	7.25 10:00	국가인권위원회 앞	박○○, 이○○, 김○○, 이○○, 이○○, 최○○ 등 20여명	○ 버스탑승거부지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23	7.24 18:30	혜화역.마로니에공 원 버스정류장	박○○, 박○○○ 등 20여명	○ ‘버스행동’ 선전전
24	7.21 13:00	혜화역.마로니에공 원 버스정류장	이○○, 유○○, 이○○, 김○○ 등 장애인 및 활동가 20여명	○ ‘버스행동’ 선전전
25	7.20 13:00	혜화로터리	박○○, 이○○ 등 장애인 및 활동가 20여명	○ ‘버스행동’ 선전전
26	7.19 17:00	광화문역 승강장	박○○, 이○○, 이○○, 이○○, 이○○ 등 20여명	○ 유○○ 활동가 구속영장 청구 입장 발표 기자회견
27	7.19 08:30	혜화로터리	박○○ 등 장애인 및 활동가 20여명	○ ‘버스행동’ 선전전
28	7.18 10:00	시청역	박○○, 이○○, 서○○, 최○○, 모○○ 등 50여명	○ 서울판 T4작전 규탄 기자회견
29	7.18 10:00	종로1가 버스정류장 혜화로터리, 광화문 중앙차로 등 4곳	박○○ 등 장애인 및 활동가 30여명	○ 계단식 버스 탑승 요구 등 ‘버스행동’
30	7.17 13:00	혜화동 로터리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박○○, 유○○, 이○○ 등 장애인 및 활동가 50여명	○ 계단식 버스 탑승 요구 및 운행방해(이○○ 서장연 대표, 유○○ 활동가 체포)
31	7.15 11:30	남대문경찰서 앞	최○○, 박○○, 유○○ 등 20여명	○ 박○○ 대표 경찰연행 규탄 기자회견
32	7.14 14:00	여의도동 글래드호텔 앞 정류장	박○○, 이○○ 등 장애인 및 활동가 20여명	○ 계단버스 가로막는 ‘버스행동’ 박○○대표 체포 남대문서 이송



연 번	일시	장소	참석	내 용
33	7.13 08:00	혜화동 로터리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박○○, 유○○ 등 장애인 및 활동가 20여명	○도로 진입 버스앞 가로막아
34	7.12 14:00	마로니에 공원	장애인 및 활동가 20여명	○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살려내라”
35	7.12 12:00	종로1가 중앙버스전용차로	박○○, 이○○ 등 장애인 및 활동가 20여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버스 통행 방해
36	7.6 10:00	용산대통령실 앞	장애인 및 활동가 20여명	○UN특별 보고관 “장애인 지하철 행동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우려” 표명 기자회견
37	7.4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장애인 및 활동가 20여명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 “우리는 일당받고 동원되는 사관이 아닙니다”
38	6.30 08:00	국회의사당역	장애인 및 활동가 20여명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행진
39	6.29 08:00	T4 농성장 앞 국회대로	장애인 및 활동가 200여명	○T4 철폐를 위한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40	6.22 14:00	서울시의회 본관 앞	장애인 및 활동가 200여명	○서울시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 형공공일자리 살리기 캠페인
41	6.16 13:00	서울경찰청 앞	장애인 및 활동가 20여명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위 하태경 위원장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42	6.15 14:00	서울시의회 본관 앞	장애인 및 활동가 100여명	○서울시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 형공공일자리 살리기 캠페인
43	6.8 14:00	서울시의회 본관 앞	장애인 및 활동가 20여명	○서울시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 형공공일자리 살리기 캠페인
44	5.25 10:00	국가인권위원회 앞	전장연 회원 등 20여명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 기형아 발언 인권위 차별 인용 촉구 기자회견
45	5.20 17:00	서울광장 분향소 앞	전장연 회원 등 300여명	○10.29 이태원참사 200일 추모시민대회
46	5.20 15:00	혜화역 앞	전장연 회원 등 300여명	○성소수자 운동 30년 열정을 있는 우리들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47	5.17 14:00	광주송정역 지하철 승강장	전장연 회원 등 20여명	○5.18광주민주화운동 43년 맞이 집회
48	5.12 15:00	강동구청 본관 앞	장애인 및 활동가 30여명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보장 요구
49	5.11 20:00	국회의사당역 4,5번 출구 방향 역사	장애인 및 활동가 30여명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및 장애인복지법 개악저지 천막농성 돌입
50	5.10 14:00	더불어민주당사 앞	장애인 및 활동가 30여명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및 장애인복지법 개악저지 천막농성 선포
51	4.26 08:00	시청역	박○○ 전장연 대표 등 30여명	○서울시 탈시설 조사표의 중립성 문제 지적 및 시설 장애인도 조사 요구 기자회견

연 번	일시	장소	참석	내 용
52	4.21 10:00	서울광장 서편 3개 차로	전장연 회원 등 200여명	○장애인평생교육법 생취 결의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마무리 보고
53	4.20 08:00	회현역, 광화문역	장애인 및 활동가 200여명	○장애인 권리입법, 예산 생취를 위한 지하철 시위(탑승시도)
54	4.20 22:00~ 7:00	서울광장 서편 3개 차로	장애인 및 활동가 200여명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 1박 농성
55	4.20 19:00	서울광장 서편 3개 차로	장애인 및 활동가 1,500여명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문화제
56	4.20 16:30	삼각지역 → 남영 → 숙대입구 → 서울역 → 송례문 → 시청 서편	장애인 및 활동가 1,500여명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 행진
57	4.20 13:00	삼각지역 야외무대	장애인 및 활동가 2,000여명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구축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 집중 결의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58	4.20 10:30	63빌딩 컨벤션센터 앞	장애인 및 활동가 100여명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
59	4.20 08:00	삼각지역 송강장(숙대방향)	장애인 및 활동가 50여명	○지하철 선전전
60	4.13 14:00	시청동편 인도 및 2개 차로	전탈연, 전장연 회원 등 200여명 김○○ 위원 등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
61	4.6 14:00	시청동편 인도 및 2개 차로	전장연 회원 등 200여명	○지속 가능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요구
62	3.30 14:00	시청동편 인도 및 2개 차로	전장연 박○○ 대표 등 100여명	○‘전국장애인대회’ 지속 가능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위한 행진
63	3.23~3 .24	시청역, 시청동편	전장연, 420공투단 등 600여명	○전장연 죽이기 중단촉구, 대화요구, 420공투단 결의대회
64	3.22 8:00	시청역(청량리방향)	박○○ 대표, 이○○ 대표 이○○ 회장 등 20여명	○전장연 죽이기 중단요구,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촉구 1, 2호선 탑승시위 예고
65	3.21 8:00	시청역(청량리방향)	박○○ 대표, 이○○ 대표 이○○ 회장 등 20여명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 보장 요구
66	3.20 8:00	시청역(청량리방향)	박○○ 대표, 이○○ 대표 이○○ 회장 등 20여명	○서울시 활동지원 표적조사 거부
67	3.17 8:00	시청역(청량리방향)	이○○회장, 이○○대표 등 20여명	○서울시 탈시설 거주시설 장애인 권리지원조사 이행촉구
68	3.14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김○○ 이사장 등 20여명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중단 요구 및 진정서 제출
69	3.10 14:00	여의도 이룸센터 앞	노들장애인야학 천○○ 교장 등 20여명	○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통과 촉구
70	3.6 8:00	시청역(청량리방향)	박○○ 대표, 이○○ 회장 오○○ 활동가 등 20여명	○전장연 소속 II센터들을 상대로 사업실적 등 요청 ○전장연 표적조사 규탄

연 번	일시	장소	참석	내 용
71	2.28 11:00	혜화경찰서 앞	전장연 박○○ 대표 등 20여명	○ 장애인 편의법 준수를 위한 서울시 경찰서 31개소 전수조사 선포 기자회견
72	2.27 08:00	시청역(청량리방향)	전장연 박○○ 대표 김○○ 이사장, 이○○ 회장, 탈시설연대 사무국장 등 20여명	○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표적수사 변질 규탄 집회 후 면담
73	2.20 08:00	혜화역	박○○ 대표 등 20여명	○ 서울경찰청 박○○ 조사 최종통첩에 대한 기자회견
74	2.16 10:00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및 농성	박○○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등 20여명	○ 교육위 계류중인 장애인평생교육법 처리 촉구
75	2.15 10:00	서울시청 정문앞	전장연, 민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단체 회원 20여명	○ 신년 결의대회(1.2~1.3)에서 경찰(서울교통공사)의 과잉진압, 지하철 무정차, 탑승 원천봉쇄 등에 대해 UN 특별보고관에 진정
76	2.10 14:00	서울시청 본관 동편	전장연 박○○대표 한자협 이○○ 회장 한국장애인포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달연 등 100여명	○ UN권리협약 준수 촉구, 협약 위반 사항 알림 ○ 불법의 주체는 전장연이 아닌 서울시 ○ 복지실장 인사발령(경질) 요구

## □ 서울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23.9월)

구 분	사 업 명	주요 내용	'23년		'24년안		증감내역	
			사업량	예산안	사업량	예산안	사업량	예산안
계			4,324	47,399	4,674	49,386	350	1,987
복지부 사업 계			3,884	40,988	4,424	45,317	540	4,329
보건복지부 사 업 (30:35:35) *안마사 파견은 80:20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등 (주 40시간)	1,200	22,490	1,200	23,066	0	576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간제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등 (주 20시간)	665	6,234	665	6,392	0	158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	사무보조, 보육도우미, 실버케어 등	1,713	7,514	2,163	9,716	450	2,202
	장애인 일자리 지원-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어르신 식사도우미, 이동(보행)도우미 등	130	1,543	190	2,305	60	762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경로당·노인복지시설 안마서비스 제공	176	3,207	206	3,838	30	631
	고용노동부 사 업 (50:50)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동료지원 상담)	동료상담 지원	40	608	0	0	△40
시 비 사 업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권익옹호·문화예술 인식개선 활동 등	400	5,803	0	0	△400	△5,803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서울형 시간제)	장애 유형에 맞춘 직무발굴 및 제공 (민·관협업)	-	-	250	4,069	250	4,069

※ '24년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사업량 및 예산 : 가내시 기준

※ 시비사업 : '24년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개편→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추진

장애 유형	특 성	맞춤형 일자리 예시	활동 예시
지 체	운전, 컴퓨터 활용 등 가능	<p>[운전원] 택시 운전, 승객 응대</p> <p>[재택 사무보조] 영상편집, 통계 데이터 정리</p> <p>[콜센터 상담원] 전화연결, 예약관리 및 상담</p> <p>[검진 보조] 병원, 보건소 등의 검진센터 환경 정리, 검사실 안내, 검사결과지 정리 등</p> <p>[스포츠센터 보조] 락커키 분배, 수건 정리 체육시설 강사 보조, 체육 프로그램 보조</p>	 
발 달	반복 학습 통한 단순 직무 가능	<p>[원예관리 보조] 식물 가꾸기, 작업·포장정리</p> <p>[택배 보조] 물품 상하차 보조, 물품 정리</p> <p>[세탁물 정리원] 세탁되어 온 세탁물을 용도에 맞추어 정리 및 사용부서 전달</p> <p>[카셰어링 자동차관리사, 세차원] 차량공유 자전거·전동킥보드 세차 서비스, 차량 내부 정리</p> <p>[장애 예술인] 문화시설에 미술 작품전시, 악기 연주 및 오케스트라 교육 실시</p>	 
뇌 병 변	이동이 적은 직무 습득 가능	<p>[품질 검사 보조] 제품 품질 상태, 불량 여부 확인</p> <p>[콘텐츠 모니터링] 불법·저작권 침해 콘텐츠 검색 및 관련 기관 신고</p> <p>[온라인 홍보마케터] 홍보자료 블로그, SNS 업로드</p>	
시 각	감각적 예민함 활용 직무 탁월	<p>[안마사, 헬스키퍼] 기업 등에 설치된 안마시설에서 직원대상 안마 서비스 제공</p> <p>※ 안마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시각장애인만 종사 가능</p>	
청 각		<p>[시데이터 라벨러]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식별할 수 있도록 수집·가공하는 업무</p> <p>[네일 아티스트] 네일아티스트 양성 교육 수료 후 복지관, 경로당 등 시설 이용인 네일 케어</p>	